

엔넨 박태하·홍콩 김판곤 감독... 아시아 누비는 한국 지도자들

한국축구 지도자들이 아시아 무대를 수놓고 있다. 선두주자는 단연 중국 슈퍼리그 엔넨FC 박태하 감독이다.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를 지낸 박 감독은 지난해 12월 엔넨 지휘봉을 잡고, 올해 갑(甲·2부) 리그 우승을 일궈 슈퍼리그 승격을 확정지었다. '만년 약제' 엔넨이 시즌 내내 당당한 행보로 16년 만의 1부리그 점백에 성공하자 대륙이 들썩였다.

당연히 중국축구계의 시선은 달라졌다. 넘치는 자금력으로 세계적 명장들을 모셔오기 바빴던 슈퍼리그 팀들이 '제2의 박태하'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대한축구협회 장외통 기술위원장이 총칭 리판 사령탑에 취임하게 됐고, U-19(19세 이하) 대표팀을 이끈 김상호 감독이 중국 갑리그 상하이 선신의 지휘봉을 잡았다. 여기에 2012런던올림픽과 2014브라질월드컵에 도전했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슈퍼리그 강저우 그린타운 지휘봉을 잡을 것이 유력시된다.

한국 지도자의 힘은 동남아에서도 강렬했다. 파타야 유나이티드 임종현 감독이 태국 프로축구 디비전1(2부리그) 2위로 2016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지휘하며 '동남아 돌풍'의 중심이 됐다. 특히 태국축구에선 일본기업 자본과 일본 지도자들의 위상과 입금이 상당해 임 감독의 지도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내년부터 박 감독을 도와 엔넨 수석코치로 활동할 이임생 코치는 홈 유나이티드(싱가포르)에서 빼어난 능력을 뽐냈고, 올해 한때 중국 갑리그 선전 루비를 이끌기도 했다.

물론 프로무대에서만 맹위를 떨친 것이 아니다. 홍콩축구협회 기술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김판곤 감독은 홍콩대표팀을 이끌고 중국과 함께 속한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 예전에서 선전을 거듭해 아시아 전역에 놀라움을 안겼고, 역시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일본을 꺾었던 캄보디아대표팀 사령탑도 한국인 이태훈 감독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길어지는 손흥민의 침묵

3개월간 골 기근...최근 2차례 교체출장 부상 후 침체...분위기 반전 '한방' 절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결국은 골이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3·토트넘·사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3개월 가까이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고, 최근 3경기 중 2차례나 교체출장하는 등 주춤하고 있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벌어진 뉴캐슬과의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 교체출장했다. 26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팀도 1-2로 역전패했다. 선발로 나섰던 11일 AS모나코(프랑스)와의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최종전에서 도움 2개를 기록했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골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손흥민은 이적 초반이던 9월 15일 카리바흐(아제르바이잔)와의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원톱을 맡아 2골을 몰아쳤고, 5일 뒤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결승골을 작렬했다. 그러나 크리스털 팰리스전 골이 마지막이었다. 같은 달 26일 맨체스터시티전에서 왼쪽 측면 근막염 부상을 당해 6주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음을 고려하더라도 골맛을 본지 제법 오래다.

토트넘이 2200만파운드(약 400억원)의 거금을 들여 손흥민을 영입한 것은 전 소속팀 레버쿠젠(독일)에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결정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적 초반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다 부상 이후 기대치를 밀도는 성적을 내고 있다. 침묵이 길어지자 조급한 모습을 비추는 등 손흥민 역시 부담감을 많이 갖는 듯하다. 흐름을 바꿔줄 손흥민의 골 소식은 언제 나올까.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대표팀 김봉수 골키퍼 코치“내 역할 다했다” 사임
축구국가대표팀 김봉수 골키퍼 코치가 15일 사임했다. 김 코치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브라질월드컵 직후 사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나 협회의 요청으로 그러지 못했다. 슈틸리케 감독 아래서 대표팀이 안정경도에 올랐고, 내 역할도 어느 정도 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김 코치는 2012런던올림픽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로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고, 2013년 7월부터 2년 5개월간 A대표팀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다.

부임 8개월만에 태국 2부 ‘파타야FC’ 1부 승격시킨 임종현 감독의 회상

“밥 한끼의 진심이 그들을 춤추게 했다”

사커 피플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 때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소규모 클럽 파타야 유나이티드를 태국 프로축구 디비전 1(2부리그) 2위로 이끌며 프리미어리그(1부) 승격을 일궈 임종현(49) 감독은 옛 생각에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파타야는 지난 주말 수코타이와의 정규리그 최종전(38라운드)에서 3-0 완승을 일궈 2013년 강등 이후 2년만의 승격을 확정했다. 태국 언론들 ‘파타야의 기적’이라며 온통 떠들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임 감독은 4월 중순 파타야의 지휘봉을 잡았다. 8개월만의 놀라운 기적을 연출한 지금이야 “좋은 판단이었다”고 회상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다. 아마추어 명문 부평고를 이끌며 최태욱 이근호 김승용 하대성 등 술한 전·현직 스타들을 키워냈고,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울산현대 수석코치로 오랜 시간 일했지만 한국프로축구는 임 감독을 불러주지 않았다. 감독 후보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좁은 선택의 폭 속에 내린 결론은 파타야행이었다.

당연히 어려웠다. 태국의 대표 휴양지이지만 정작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낯선 문화와 환경, 통역조차 없는 척박한 인프라와 급여도 잘 나오지 않는 부족한 지원에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파타야는 올 시즌 초 선수단 급여 미지급으로 구단주가 태국축구협회로부터 결질됐고, 현재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통역은 없었다. 영어를 하는 직



12일 파타야 유나이티드를 2015 태국 프로축구 디비전1(2부) 2위로 이끌며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한 임종현 감독(가운데)이 코칭스태프를 격려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임종현 감독

K리그 감독 후보군 탈출 위해 파타야행 열악한 구단 환경과 외로움에 자살 충동 몸관리도 안되는 선수 상대 맞춤형 지도

올림픽대표팀 2명 배출 ‘감독상’ 수상 이전 어디서든 잘 할 자신감이 생겼다

원과 생긴 영어를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가끔 파타야인 통역을 부를 때도 있지만 많지 않았다. 홀로 라면 끓이고, 고추장 비빔밥 만들어 먹을 땐 ‘여기서 대체 뭘 하나’ 싶었다. 숙소인 14층 아파트에서 문득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정말 병들겠다 싶었다.”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었다. 많게는 하루 2시간짜리 훈련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저 축구 생각에 몰두했다. 프로의식은커녕, 가장 당연한 몸 관리조차 버거워한 어린 제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도가 필요했다. “복잡하면 전달이 안 됐다. 훈련을 이해하지도, 따라오지도 못했다. 최대한 간결하고, 가장 단순한 훈련 프

로그램을 짰다.”

이는 팀 전체를 춤추게 했다. 더불어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갔다. 선수 개개인을 따로 불러 밥을 사먹이고, 차 한 잔을 함께 하며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다. 끈끈한 신뢰로 똘친 이들이 재미있는 축구를 하자 경기 내용이 나날이 발전했고, 차츰 성적도 좋아졌다. 자연스레 ‘이기는 맛’까지 깨우쳤다. 태국축구계 전체가 파타야를 주목한 것은 당연지사. 올림픽대표를 2명이나 배출하는 쾌거를 일궈 임 감독은 태국축구협회가 수여하는 ‘2015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곳에 올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왔다. 모든 부분에서 아쉬운 팀을 ‘좋은’ 팀으로 바꾸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이전 어디에서도 ভাল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우리 선수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조금 뒤늦은 시기에 성공적인 프로 사령탑의 첫 걸음을 내디딘 임 감독은 아직 재계약을 결정하지 못했다. 물론 파타야는 계약연장을 희망하지만 여러 곳에서 그를 주목한다. 물론 모두가 프리미어리그 팀이다. 태국축구에 강렬한 태풍을 일으킨 임 감독에게는 당연한 선물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임종현 감독은?

▲생년월일=1966년 3월 8일 ▲출신교=부평동중~부평고~고려대 ▲프로 경력=일화천마(1989~1993년), 울산현대(1994~1996년) ▲지도자 경력=부평고 코치(1997~1999년), 고려대 코치(2000~2001년), 울산현대 코치(2004~2008년, 2013~2014년), 파타야 유나이티드 감독(2015년 현재)



레스터 시티 선수들이 15일(한국시간) 캄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첼시와의 홈경기 후반 2분 리아드 마레즈의 골이 터진 뒤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레스터(영국) | AP뉴시스

레스터 돌풍...‘14년간 8연패 굴욕’ 첼시도 제압

인조이 EPL

라니에리 감독 “마레즈·바디의 힘”
첼시 승점 15점...강등권과 1점차

예상 밖의 결과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2015~2016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 시티의 활약이 전 세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전체 시즌 일정의 40% 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레스터 시티는 10승5무1패(승점 35)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던 레스터 시티가 ‘반전의 시즌’으로 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자, 영국 언론은 다음 시

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지로 떠들썩하다. 특히 15일(한국시간) 레스터 시티는 홈에서 디펜딩 챔피언 첼시를 2-1로 누르고 14년간 8연패의 사슬마저 끊었다. 그 중심에는 올 시즌 레스터 시티의 지휘봉을 잡은 전 첼시 사령탑 클라우디오 라니에리(64) 감독이 있다.

라니에리 감독은 엄청난 시즌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첼시에 승리한 직후 라니에리 감독은 “시즌 시작 당시의 목표는 승점 40점이었다. 이것을 먼저 달성하겠다”며 레스터 시티의 우승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라니에리 감독은 또 “팬들은 꿈꾸고 있지만 우리는 평범한 팀이다. 열정적인 팬

들의 응원이 우리를 이곳에 오르게 해줬다”며 팬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레스터 시티의 강세는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제이미 바디(28)와 리아드 마레즈(24)가 이끌고 있다. 바디는 첼시전에서 시즌 15호 골을 터트리며 최근 1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바디는 또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까지 리그 12경기 연속 골 신기록을 세우며 2003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루트 판 니스텔루이의 기록을 깼다. 마레즈는 올 시즌 레스터 시티의 18골에 기여하며 바디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니에리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적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레스터 시티는 올 시즌 모든 리그 경기에서 득점하는 등 멈출 줄 모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첼시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우승 경쟁은커녕 현재 승점 15점으로 16위에 머물고 있다. 강등권과는 단 1점차다. 이 때문에 조제 무리뉴 감독의 경질설이 영국 언론에서 끊이질 않고 있고, 이미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나는 이 구단의 감독이고 나의 능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도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곳에 남고 싶으며 로만 아브라모비치(첼시 구단주)가 나를 이곳에 남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리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첼시가 반전을 위해 다른 감독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